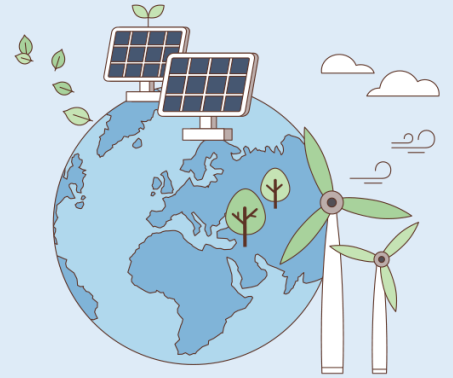


# ESG

##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 E (Environment)

#### 주간 국내 기사

- 산업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 로드맵 제시 *한국일보*
- 수소경제 시계 빨라지나...저장·운반 시장 급성장 기대 *이데일리*
- SK온, 재사용 배터리로 '친환경 ESS' 구축 *뉴시스*
- "태양광 키운다"는 美獨 새 기후정책...설레는 한화솔루션 *머니투데이*
- 철강사 포스코가 조개껍데기 모으는 까닭 *경향신문*
- 탄소발자국 줄여라... 치킨·식음료, ESG 친환경 속도 *농업경제신문*
- 기후변화 대안 부상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에 투자금 몰려 *오피니언뉴스*
- 환경 살리고 돈도 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커진다 *조선비즈*
- 식탁부터 화장대까지...유통계 '너도나도 ESG경영' *이코노미리뷰*

### G (Governance)

#### 주간 국내 기사

- 포스코 지주사 전환 '첫 번째 관문' 이사회...사외이사 7인의 표심은 *더벨*
- '절게 더 절게' 세대교체로 LG 바꾸는 구광모 號 인사 기조 *이코노미스트*
- 일진머티리얼즈, 1조1500억 투자 유치 성공...창사 최대 규모 *뉴시스*
- SK스퀘어, 코빗 자본 35% 인수...온마인드에 80억 투자 *서울경제*
- 한국타이어, 2045억 투자해 자율주행차 기술 보유 기업 인수 *디지털타임스*
- 기업 물적분할 러시...“금융당국 규제 나서야” *글로벌이코노믹*
- 마켓컬리, 2500억원 프리IPO 투자유치...몸값 4조원 성장 *머니투데이*
- OCI, 금호피앤화학과 EV-풍력발전용 소재 사업에 '3800억' 투자 *더팩트*
- 2차전지 소재사 글로벌 완성차 첫 '합작' *한국경제*

### S (Social)

#### 주간 국내 기사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뉴시스*
- 현대차 노조까지 MZ세대에 줄었다 *매일경제*
- 삼성, 전무 없애고 부사장 통합...‘30대 임원’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노사,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 선진 노사관계 앞장 *머니S*
- 코로나19 탓에 육아 부담 증가...집에서 아이 보는 부모 늘어 *이코노미스트*
- 8년 만의 '근로시간제한도' 심의요청...경제계 "재고해야" 반발 *뉴시스*
- GS건설, CSO 산하 3개팀 편성...‘프리콘’ 사고예방 *더벨*
- 일감 몰아주기 우려 높은 기업일수록...소수주주 보호 '방치' *경향신문*
- 근속 1년차대비 30년차 월급 3배...“韓, 日·EU보다 높아” *이데일리*

###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석탄·발전산업 투자 어디까지 제한할지 연구한다 *서울경제*
- 해양진흥공사, 15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 *조선비즈*
- SK에코플랜트·IMM인베, 3000억 코퍼펀드 조성...“해외 ESG 투자” *머니투데이*
- 600여 개 난립 ESG 지표 혼란 줄인다...‘K-ESG 가이드라인’ 발표 *매일경제*
- 늘어나는 RE100 선언...신재생에너지 장기 계약 급증 *한경비즈니스*
- SC제일은행, '지속가능투자 프레임워크'로 그린워싱 걸러낸다 *이코노미스트*
- 국민연금, 3분기까지 운용수익 67조...수익률 8% *한경비즈니스*
- ESG 금융 35조3000억달러, 미래 이끌 혁신기업에 투자해야 *세계일보*
- 우리금융, 2030년까지 100조 '통 큰'지원 *이데일리*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 ESG FOCUS UPDATES

## 제 26 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의 주요 성과와 의미

- 한국금융연구원 21.11.30

E

- 전세계 기후대응 관련 가장 중요한 국제적 논의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의 논의 끝에 11월 13일 종료되었는데,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지구 온도 섭씨 1.5도 상승 제한을 유지하고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들을 확정하는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발표함.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2022년에 NDC로 알려진 2030년 배출량 목표를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동의함
- 한편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배출량을 45%까지 감축하고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며, 기타 온실가스도 크게 감축하는 빠르고, 상당하며 지속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 또한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등 화석연료의 축소 노력 가속화에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함
-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도록 촉구함에 따라 선진국은 기후적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함. 이 외에도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교환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파리협정 이행 지침 제6조의 내용이 6년에 걸친 논의 끝에 확정되면서 파리규정집이 완성됨
- 그러나 애초 논의된 '비감소된 석탄발전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모두에 대한 단계적 중단 노력 가속화' 약속 대신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압력으로 '비감소된 석탄발전의 경우 '단계적 축소 노력 가속화' 약속으로 수정된 것, 그리고 '비감소된', '비효율적'이라는 단서가 여전히 남게 된 것은 COP26의 성과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한편 다양하게 결성된 이해관계자 연합들이 COP26을 통해 추가로 발표한 사항들은 당사국 총회 협약에서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 130조 달러 규모의 총 운용자산에 해당되는, 유엔기후변화특사인 Marc Carney 전 영란 은행 총재가 주도한 450여개 금융기관의 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을 천명함

## 기후관련 위험 확대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 예금보험공사 21.12.02

E

- 기후변화로 인하여 등장하는 위험은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전환위험(transition risk)으로 구분할 수 있음.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가치가 잠식되는 것을 가리키며, 전환위험은 물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탄소 경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의미함
-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은 기후변화 자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양자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합되거나 증폭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정책은 온난화를 늦추어 물리적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경제 주체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전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반대로 기업의 비용 증가나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현상에 대한 우려로 탄소감축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단기적으로 전환위험을 축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물리적 위험의 과도한 축적을 결과하여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이 동시에 현실화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 기후관련 위험의 실현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이 일시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충격이 증폭되어 금융시장에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충격 증폭으로 인한 안정성 훼손은 수익률 분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다수의 자산이 영향을 받는 경우 가능성이 특히 부각됨
- 금융감독원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2028년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4.7%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11.7%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였음
-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로 평균기온 1.5~2℃ 상승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2050년까지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인 10.5%를 상회할 것이지만, 평균기온 1.5℃ 이내 상승 시나리오의 경우 2040년 이후부터는 탄소집약적 부문에 속하는 기업의 부도율 상승 및 주가 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 은행 BIS 비율이 규제비율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유인은 규제자본이나 유동성 비율규제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제공하는 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예금보험기금의 운용 대상으로 녹색채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거나 탄소 집약도가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비중을 낮추거나 매입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G

## ESG 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 여신금융연구소 21.11.30

-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ESG 전략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짐. 첫째는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ESG 기업경영 및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것임. 둘째는 ESG 투자와 ESG 금융상품 판매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것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융 전문성이 요구되며 향후 금융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임
- 대다수 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기본적으로 상법 회사편의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받으며, 상장사의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상장사 특례규정을 적용받음. 금융회사는 여기에 더해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지배구조 규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7월 제정되어 1년 뒤인 2016년 8월부터 시행됨
- 그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규는 개별 금융업권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 간 형평성을 제고함
-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안정을 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지배구조 개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 특히 여성 이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됨
- 즉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경과 기간을 두어 2022년 8월 5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임
- 주식회사 이사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관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별히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회이사여야함
- 금융회사는 상장사가 아니라도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네 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이러한 필수적 위원회 외에도 ESG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ESG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E

## 2021 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1.30

-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음
-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함
-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
-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이번 총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선진국은 2019년 기준으로 796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면서 기존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함
-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하였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번 당사국총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사국총회 평가]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완성되었고, 감축 목표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함
- [기후적응사업 확대 대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

## E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의 배경과 동향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2.01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지칭함
-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함
-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 체제로부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하면서 1) 친환경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2)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함
-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함.
-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20.3분기 대비)을 보면 리튬은 395.4, 마그네슘 290.5, 망간 102.6을 기록함
- 중국의 경우, 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이 급감함.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원자재 공급이 감소함
-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더불어 탄소중립 과도기간 중 전력공급 원안 보완성도 함께 조절해갈 필요가 있음
- 한국도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현재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량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 전략을 시행해야 함

## E

## COP26의 정책합의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 보험연구원 21.11.29

-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기업경영의 패러다임도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중 환경 요소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평가기관인 A.M. Best의 2020년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을 통하여 ESG 확산에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며 ESG 경영이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분산시키는 고유의 업무(보험인수)와 이 과정에서 모아진 책임준비금 등을 투자(자산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가계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에게 보험료라는 시장가격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유인제과 자산운용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투자가 가능하므로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통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기여가 가능함
- 예를 들어, COP26을 통해 각국이 감축하기로 합의한 석탄산업 등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와 투자를 줄여나가며 환경 관련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특히 장기투자에 최적화 되어있는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 및 금융의 수요를 보험산업의 기회요인으로 만들 필요도 있음

## E

## 최근 주요국 전기요금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 21.11.30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요금 수준의 변화도 주요국 대비 작았던 것으로 나타남
- EU와 미국의 2011~2021년 전기요금은 연평균 1.2~1.8% 상승하는 공통적인 추세를 보임. 총발전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탄소비용을 내부화하여 전기요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2015~202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하회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 발전설비 이용 형태가 유지되면서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크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발전원가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기후변화대응과 국제에너지 가격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상승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저탄소 전원 확대를 반영한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 검토가 필요함
- COP26에서 발표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고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므로 설비투자 확대 및 저탄소 전원 증가로 발전원가 상승이 예상됨
- 국제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과정임.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은 설비투자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2021년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발전회사의 매출원가율 상승과 부채비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발전회사의 당기순손실을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390400** Samsung KODEX US Smart Mobility S&P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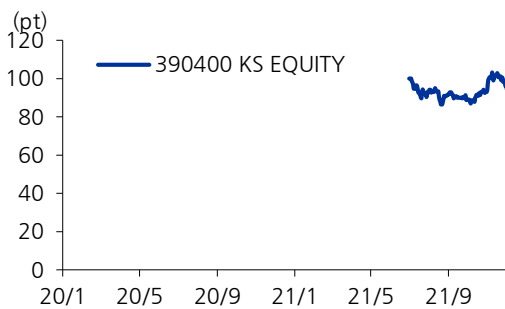
- 미국거래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억달러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00만달러 이상 종목 대상
-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Smart Transportation이 주요 사업 영역인지 여부에 따라 '핵심기업', '비핵심기업'으로 구분하여 핵심기업에 20%의 가중치를 부여. 각 분류 내에서는 동일 가중 부여

ETF 개요

티커	390400 KS EQUITY
상장일	2021-06-28
운용사명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
총보수율(%)	0.53
기초지수	S&P Kensho Smart Transportation Index
가중 방식	Basket
주당 가격(달러)	8.27
보유종목 수	83
시가총액(백만달러)	11.6
<b>시총/전략/지역</b>	<b>Broad Market / Blend / U.S.</b>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5.9	-2.0	3.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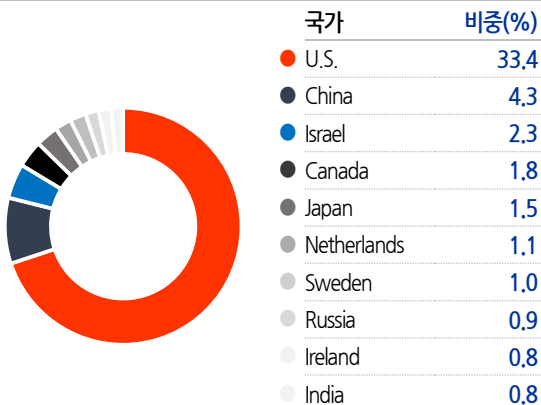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일 기준  
주: 2021.07.0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CAR US	Avis Budget Group Inc	14,745	2.2
ASPN US	Aspen Aerogels Inc	1,702	1.5
AMBA US	Ambarella Inc	7,095	1.4
HAIL US	SPDR S&P Kensho'	179	1.3
TSLA US	Tesla Inc	1,019,299	1.3
VNE US	Veoneer Inc	3,960	1.0
PLUG US	Plug Power Inc	19,285	0.9
F US	Ford Motor Co	76,488	0.9
XPEV US	XPeng Inc	37,481	0.9
ALGM US	Allegro MicroSystems	6,118	0.9
<b>합계</b>			<b>1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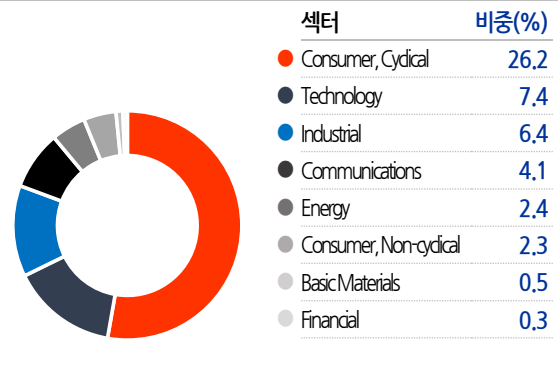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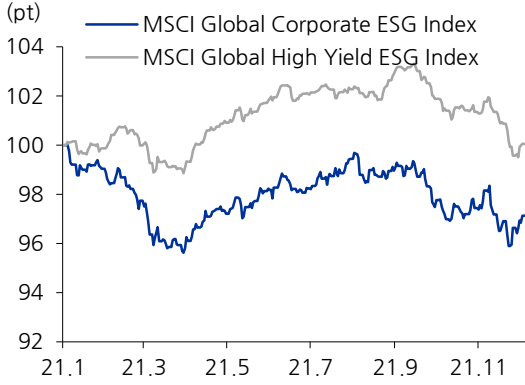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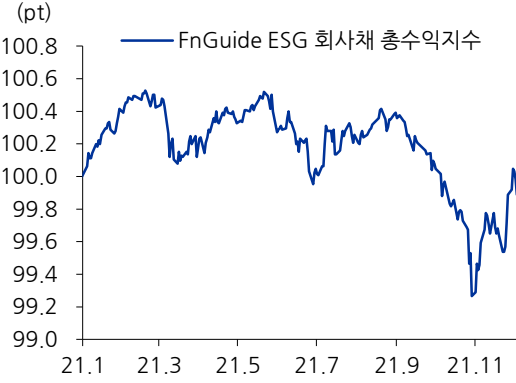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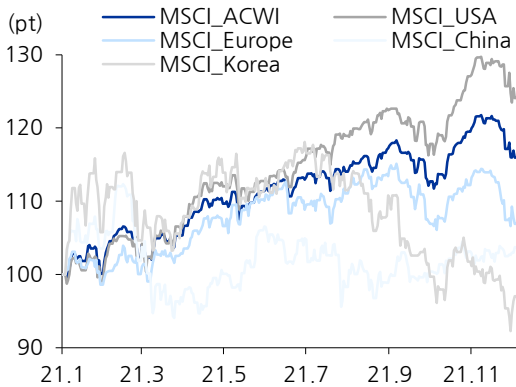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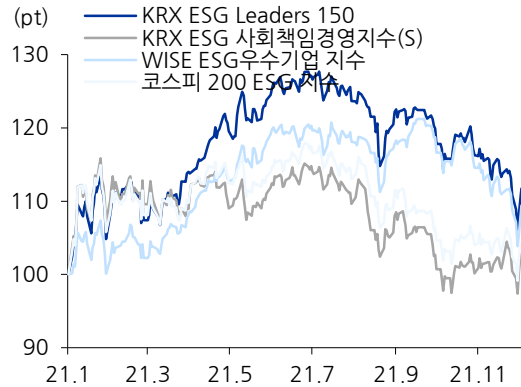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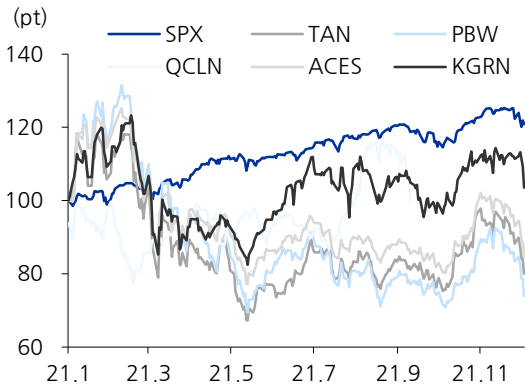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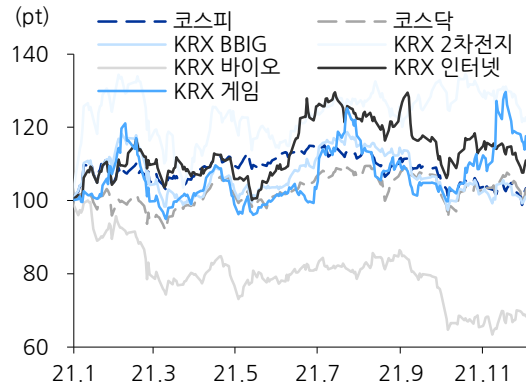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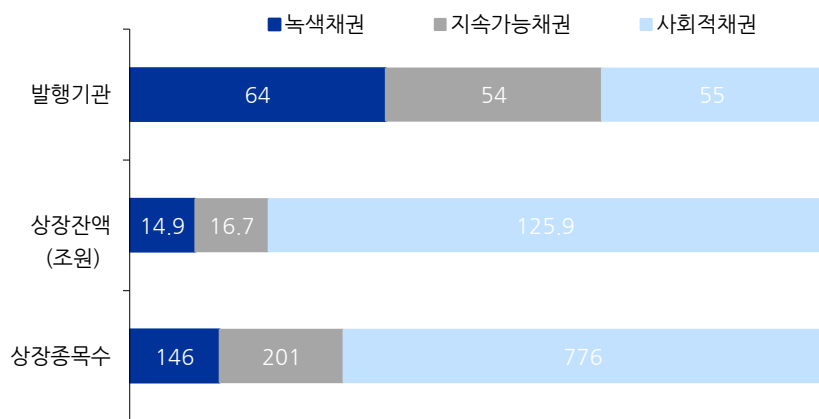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61(사)	2021/12/02	1.98700	90,000
사회적채권	농업금융채권(은행)2021-12 이 1Y-A(사)	2021/12/02	1.35000	200,000
녹색채권	산은캐피탈 680-1(녹)	2021/12/01	2.42300	50,000
녹색채권	산은캐피탈 680-2(녹)	2021/12/01	2.48800	3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변)751(사)	2021/12/01	3.25000	5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52(사)	2021/12/01	1.96000	130,000
사회적채권	케이비국민카드 343-1(사)	2021/12/01	2.09700	50,000
사회적채권	케이비국민카드 343-2(사)	2021/12/01	2.11700	50,000
사회적채권	케이비국민카드 343-3(사)	2021/12/01	2.31900	100,000
사회적채권	케이비국민카드 343-4(사)	2021/12/01	2.40000	20,000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24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12/01	2.30700	99,713
지속가능채권	전북은행 2511 이 1.5 갑 29 번(지)	2021/11/30	1.68000	5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해양진흥공사 12-1(지)	2021/11/30	2.12300	150,000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22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11/30	2.39500	277,303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23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11/30	2.39500	118,864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3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